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ishes to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2011. 10

Manna of Choonghyun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사사기 · 갈라디아서 · 에베소서 · 빌립보서
구역예배 · 대학청년부 GBS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ishes to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믿음의 승리, 십자가

Contents

- 9 매일성경묵상 사사기 1장
- 12 1과 다니엘의 믿음
- 20 매일성경묵상 사사기 2장 ~ 사사기 7장
- 28 2과 갈보리 언덕 위의 세 십자가
- 36 매일성경묵상 사사기 8장 ~ 사사기 13장
- 44 3과 다 이루었다!
- 52 매일성경묵상 갈라디아서 1장 ~ 갈라디아서 6장
- 60 4과 하나님이 이보람을 부르시다
- 68 매일성경묵상 에베소서 1장 ~ 에베소서 6장
- 76 5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 84 매일성경묵상 빌립보서 1장
- 86 창로피택자 주제발표

10

October 2011

주 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2	3 사사기 2장	4 사사기 3장	5 사사기 4장
9	10 사사기 8장	11 사사기 9장	12 사사기 10장
16	17 갈라디아서 1장	18 갈라디아서 2장	19 갈라디아서 3장
23	24 에베소서 1장	25 에베소서 2장	26 에베소서 3장
30	31 빌립보서 1장		

November

1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교회 주요일정

10월 23일

제5차 학습세례식

10월 28일

제3차 청지기훈련

10월 30일

종교개혁주일

나의 주요일정

1 사사기 1장

6 사사기 5장

7 사사기 6장

8 사사기 7장

13 사사기 11장

14 사사기 12장

15 사사기 13장

20 갈라디아서 4장

21 갈라디아서 5장

22 갈라디아서 6장

27 에베소서 4장

28 에베소서 5장

29 에베소서 6장

1 2011년 제3차 청지기훈련(10월 28일 금요일, 7시)에 모든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여 참석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2 2011년, 충현의 모든 성도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요 3:5)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3 교회에 등록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4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은총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5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6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알꾼(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7 1년 1인 1명(1·1·1)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딤후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8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9 충현의 재단들(유지·동산·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양로원·함양충현농원) 및 준공된 사랑관과 자연장(납골시설)이 이웃 사랑의 열매(롬 15:2)가 되게 하소서.

믿음의 승리, 십자가

십자가는 믿음의 사람을 특징짓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아무 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다니엘도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온갖 핍박이 있었지만, 그의 믿음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는 평생 악한 짓만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한 행악자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 다니엘, 십자가에 달린 한 행악자,

이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경건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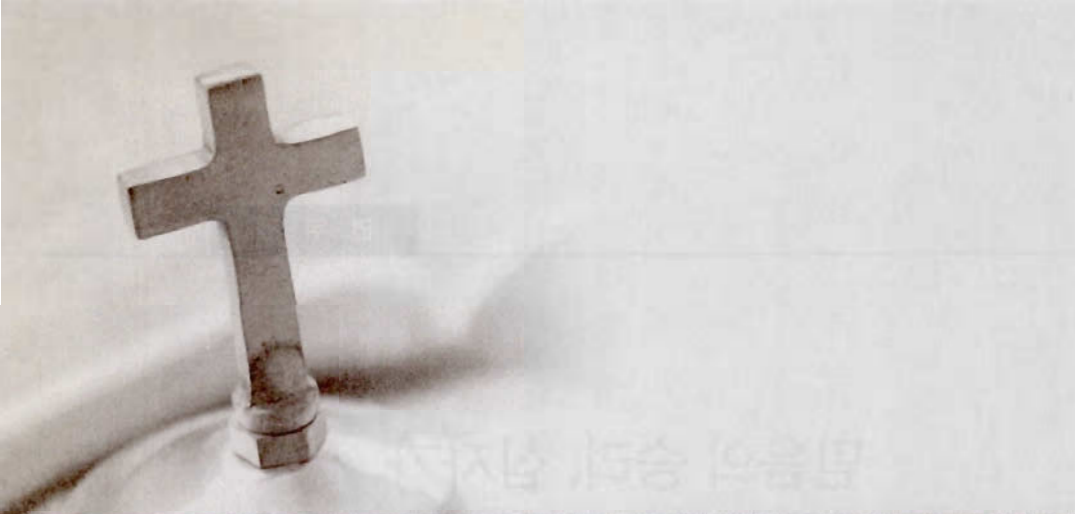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었고,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011년 10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성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매일성경묵상

가정예배 · 구역예배 · 대학청년부 GBS

HOLY BIBLE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1

‘여호수아가 죽은 후’라는 구절로 사사기는 시작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사업을 일단락 짓고 그 토지를 각 지파별로 분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정복 상태로 남아 있었던 지역도 상당수에 달했습니다(수 13:1~7). 이 지역들은 반드시 정복되어야 할 민족적 과제로서 각 지파들에게 맡겨졌던 것입니다. 기업 분배 때에 최우선 순위였던 유다 지파는 미정복지에 대한 정벌 사업에서도 제일 먼저 출정하도록 지명되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갈렙과 오니엘의 활약 및 시므온 지파와 겐 족속의 도움으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성공적으로 정벌하였지만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19~21절).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요셉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은 그곳 거민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그들의 지위를 보장해 줌으로써 오히려 그곳에서 쫓겨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22~36절).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한 세대가 끝나기도 전에 무서운 타락의 수렁으로 빠져들어 갔는데, 이는 가나안 주민들을 철저히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데서부터 이미 죄악의 씨이 트기 시작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했는데, 점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거하는 처지로 전세가 역전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조금씩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받아들이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세계관에 점령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쫓아내지 못하면 점령당합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의지합시다. 그것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물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삿 1:30)

사사기 1장

찬송가 348장

목/창/노/트

• 벤세메스(33절) : ‘태양의 집’이란 뜻으로 그곳이 태양신에게 경배하던 창소였음을 암시해 준다.

기도제목

기도노트

- ① 내 삶에서 아직도 쫓아내지 못한 세상적인 가치관과 문화들을 하나님도 남김없이 버리게 하시고 주님만 따르게 하소서.
- ② 2011년 제3차 청지기훈련(10월 28일 금요일, 7시)에 모든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여 참석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역설 Paradox

대중의 예기(豫期)에 반하여 일반적으로
진리라고 인정되는 것에 반하는 설.
또는 진리에 반대하고 있는 듯하나,
잘 음미하여 보면 진리인 설. 패러독스.

“주님의 말씀이 없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인다. 이것은 분명 거짓이다. 그럼에도 많은 신자들이 이 속임수에 아무 거리낌 없이 속는다. 말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세상의 권위 아래에 두려고 한다. 그래야만 세상에서 성공하고 천국에도 갈 수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적이다. 십자가의 참혹한 패배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이 더욱 영광을 받고, 실패를 통해 승리를 얻게 되고, 깨어짐으로 나음을 얻게 되고, 나를 잃어버림으로 나를 찾게 된다.



세상의 목표는 획득하고, 증가시키고, 성취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의 가치나 의미가 있지만, 우리의 목표는 다른 부르심에 있다. 역설이다.

십자가는 깨지고 비우라고 말한다. 우리에게 아무 것도 없을 때, 그 때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고후 12:10).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 6:1~23

칼보리 언덕 위의
세 십자가

누가복음 23:33~43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30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시다

창세기 12:1~3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39~43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2 주일

3 월요일

☐ 사사기 2장

4 화요일

☐ 사사기 3장

5 수요일

☐ 사사기 4장

6 목요일

☐ 사사기 5장

7 금요일

☐ 사사기 6장

8 토요일

☐ 사사기 7장

다니엘의 믿음

1

| 초점 |

다니엘은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

| 찬송 |

찬송가 343장 시험 받을 때에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 본문 | 다니엘 6:1~23

⁽¹⁾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백이십 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²⁾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의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

⁽²²⁾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²³⁾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란 이름의 뜻을 가진 다니엘은 이방 군주의 신하였습니다. 기원전 605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젊은 시절 포로로 끌려 온 그는 정부 관리이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 다니엘의 삶이 어떠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단 1:19, 5:13).

단 6:2~3

신자들의 삶이 늘 그렇듯,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수록 원수의 공격도 더해갑니다. 다니엘의 동료들은 그를 대적하여 모함했지만 그는 믿음을 더욱 굳게 지켰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인기가 없다

믿음의 사람은 보통 인기가 없습니다.

단 6:4

악한 사탄은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베드로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앎이라”(벧전 5:8~9). 바울, 베드로, 야고보, 스데반 같은 위대한 종들은 혹독한 핍박을 겪었습니다.

※ 바울, 베드로, 야고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핍박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요 15:18~19

오순절 이후, 초대 교회가 뿌리내린 이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때문에 항상 고난을 받았습니다. 수세기가 거듭되어도 이 세상을 사는 신자들은 언제나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는다

믿음의 사람은 적의 공격을 받습니다. 다니엘의 대적들은 그의 결점을 찾으려 했지만 그 어떤 것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궁리해 냈습니다.

단 6:5 _____

그들은 영리하게도 왕으로 하여금 누구든지 30일간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 굴에 던져진다는 금령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란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가 절대로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그것에 근거해 사악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약 4:7~8 _____

본디오 빌라도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일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세상은 그를 미워해 죽였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적의 공격을 견디어 낼 수 있을까요?

눅 23:14 _____

요 16:2 _____

항상 기도한다

다시 읽으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항상 기도하며 도움을 찾습니다.

단 6:10

왕의 금령에 대한 다니엘의 반응은 이전과 다름없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엇도 그의 믿음의 실천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숨거나 몰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사자 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지옥에 있었지만 그는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신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환난의 시기를 보낸다면 그 시간은 괴롭지 않을 것입니다.

※ 사자 굴에 갇힌 다니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사자 굴에서 천사와 함께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의 승리는 시련 후에 온 것이었습니다.

단 6:22

※ 다리오 왕의 조서(단 6:25~27)가 의미하는 것에 대해 나누어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인기가 없으며, 항상 원수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바로 다니엘의 삶이 이와 같았습니다. 술한 원수들의 모함과 공격에도 다니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마 16:24 _____

고전 15:31 _____

| 간절한 기도 |

- ① 십자가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 ②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 ③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가시와 울무

사사기 2장
찬송가 532장

독/상/노/트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던 세대가 다 죽고,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이미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으며, 현재의 삶 속에서도 인도하시고, 장래에도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과 함부로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징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자기 백성을 적들에게 내어 줌으로써 그들이 적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백성의 타락한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 삶이 즐거울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가시처럼 구는 세상 사람들 때문에 겪는 고통으로 울부짖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성경이 말씀하듯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타락과 방종의 삶임에도 자유롭다면 타락한 삶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돌아오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악한 세상에 오신 독생자를 믿고 의지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길 원합니다.

• 여호와와 사사(1절) :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와 사사의 출현은 여호와 자신의 현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울무가 되리라 하였노라(삿 2:3)

기도제목

① 타락한 세상을 즐기는 것이 자유라고 착각하게 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오직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앎매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안식의 회복

4

가나안 정복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여호수아 사후 세대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그들 가운데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 두셔서 전쟁을 경험하게 합니다. 남아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자기 백성의 순종 여부를 확인하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1~4절). 8년간 악한 이방 왕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웃니엘을 보내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입히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4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7~11절). 웃니엘 이후 하나님은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의 지도력 아래서 80년 동안이나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사들의 능력 때문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 사실은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는 삼갈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통해 드러납니다(15~31절).

이스라엘은 평화와 안식을 누리야 할 약속의 땅에서 도리어 악에게 종노릇하며 안식을 빼앗겼습니다. 오랫동안 죄와 형벌 아래 놓여 신음하던 우리 영혼도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 생명과 평화와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악한 나, 타락한 나를 위해 살아가면 우리는 또 다시 안식을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팔십 년 동안 평온하였더라(삿 3:30)

사사기 3장

찬송가 411장

묵/상/노/트

• 돌 뜨는 곳(19절) : 히브리어의 원뜻은 '채석장', 또는 '조각한 우상'을 의미한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국경선 부근에 돌로 만든 왕의 모습을 그린 우상을 세워서 확장된 영토를 표시하곤 했다.

기도제목

① 안식을 누리야 할 우리의 신앙생활이 악에게 종노릇함으로 안식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② 2011년, 충현의 모든 성도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증요 350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기도노트



믿음의 싸움

사사기 4장
찬송가 374장

목/상/노/트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 때 불살라버린 하솔이 150년이 지난 사사 시대에 당당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이제 역사는 역전이 되어 이스라엘의 지위가 이방인에게 종노릇을 하는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드보라와 야엘을 사용하십니다. 가나안의 철병거 앞에 이스라엘의 못 남자들이 용기를 내지 못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여성들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드보라와 야엘은 남성 지도자들 못지 않게 용기 있는 믿음과 지혜로운 행동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담대한 승리를 안겨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싸움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라면 똑같이 혈과 육의 대립에서 강한 자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자 사사 드보라와 야엘을 들어 사용하심으로 이 싸움이 혈과 육으로써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며 이 싸움은 오직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힘이 없고, 세상을 제압하는 무기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싸우신다는 확신입니다. 이 믿음은 소 유한 사람만이 세상의 거친 무기들로 대적해 오는 이 싸움에서 진정한 승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싸우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 하솔(2절) : 0원 왕조의 도성으로 북부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요새였다.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삿 4:23)

기도제목

① 이 세상의 강력한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앞서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②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기도노트

승리의 노래

6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한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으로 승리를 이끄신 진정한 지도자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과 언제나 함께 하셔서 승리를 이끌어 주십니다(1~5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철병거 앞에 무력해져서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로 다녀야 했습니다. 드보라가 일어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가나안 세력에 맞서 싸울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의 힘은 쇠약했습니다(6~9절). 때문에 드보라의 전투 요구에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공동체를 구하는 사역에 동참한 자가 있는 반면에, 이미 누리고 있는 특권에 만족하며 공동체의 고통을 방관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14~18절). 결국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메로스 성읍은 저주를 받게 되었고, 이들과는 달리 여호와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가장 큰 공을 세운 야엘은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23~27절).

메로스 주민들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일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함이었지만, 결국에 더 소중한 것을 잃고 맙니다. 철병거가 무섭고, 세상의 힘이 무서워서 떨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여호와와의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를 맞볼 수 없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인 싸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 하셔서 부활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더욱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전쟁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의 왕으로 재림하실 그 날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헛된 소망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가야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 있게 돋음 같게 하시옵소서(삿 5:31)

사사기 5장

찬송가 360장

목/창/노/트

• 므깃도 물가 다아낙(19절) : 교통의 요로이며, 군사 전략 기지로서 오늘날의 하이파 항구에서 남동쪽으로 약 30km 지점에 위치한다.

기도제목

① 우리의 삶에 작은 싸움들은 계속 되지만 사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음을 받고,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은총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기도노트



가장 작은 자 기드온

사사기 6장
찬송가 539장

목/창/노/트

드보라가 지도력을 발휘하던 40년 동안 안식을 누리던 이스라엘이 또다시 범죄하여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우상 숭배의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족에게 넘겨, 7년 동안이나 괴롭힘을 당하게 하셨습니다(1~6절). 반복적인 죄에 대해 징계의 회초리를 드셨던 하나님은 기드온을 불러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용사가 아닌, 지극히 평범하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용사가 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을 택하셔서 용사로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16절)라는 약속을 주셨지만 기드온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기드온은 ‘여호와 살롬’의 제단을 쌓은 후, 곧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나는 부족해서 못 합니다”라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며 교만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 용하신 이유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지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나 같이 부족한 자를 사용하시려는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 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삿 6:15)

• 너의 힘(14절) :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힘을 일컫는다.

기도제목

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자이지만 부족한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하나님의 방법으로

8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한 기드온은 드디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용사를 모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자원한 수많은 병사 가운데 2만 2천 명을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시고, 남아 있는 1만 명 중에서도 3백 명의 소수 정예부대만을 선별하십니다(1~9절). 메뚜기처럼 많은 적과 상대하기를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승리의 확신을 주십니다. 이에 힘입어 기드온 역시 300명의 용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의 확신을 심어 주며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합니다(15절).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기를 버리고 한 손에는 나팔을, 또 다른 한 손에는 횃불을 숨긴 향아리를 들게 하셨습니다(16~18절). 이것은 전쟁의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이미 경험해 본 그 경험에 의지하여 맡겨진 일들을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방법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멋지게 그 일을 끝마쳤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승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기드온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이 승리 앞에 자신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미천한 자를 사용하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 뿐입니다.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향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삿 7:20)

사사기 7장

찬송가 302장

목/상/노/트

• 세 대로 나누어(16절) : 세 분대로 나누는 것은 구약 시대에 많이 채택되었던 전략이다(삼상 11:11 ; 삼하 18:2).

기도제목

① 나의 방법과 나의 경험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삶이 되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 일꾼(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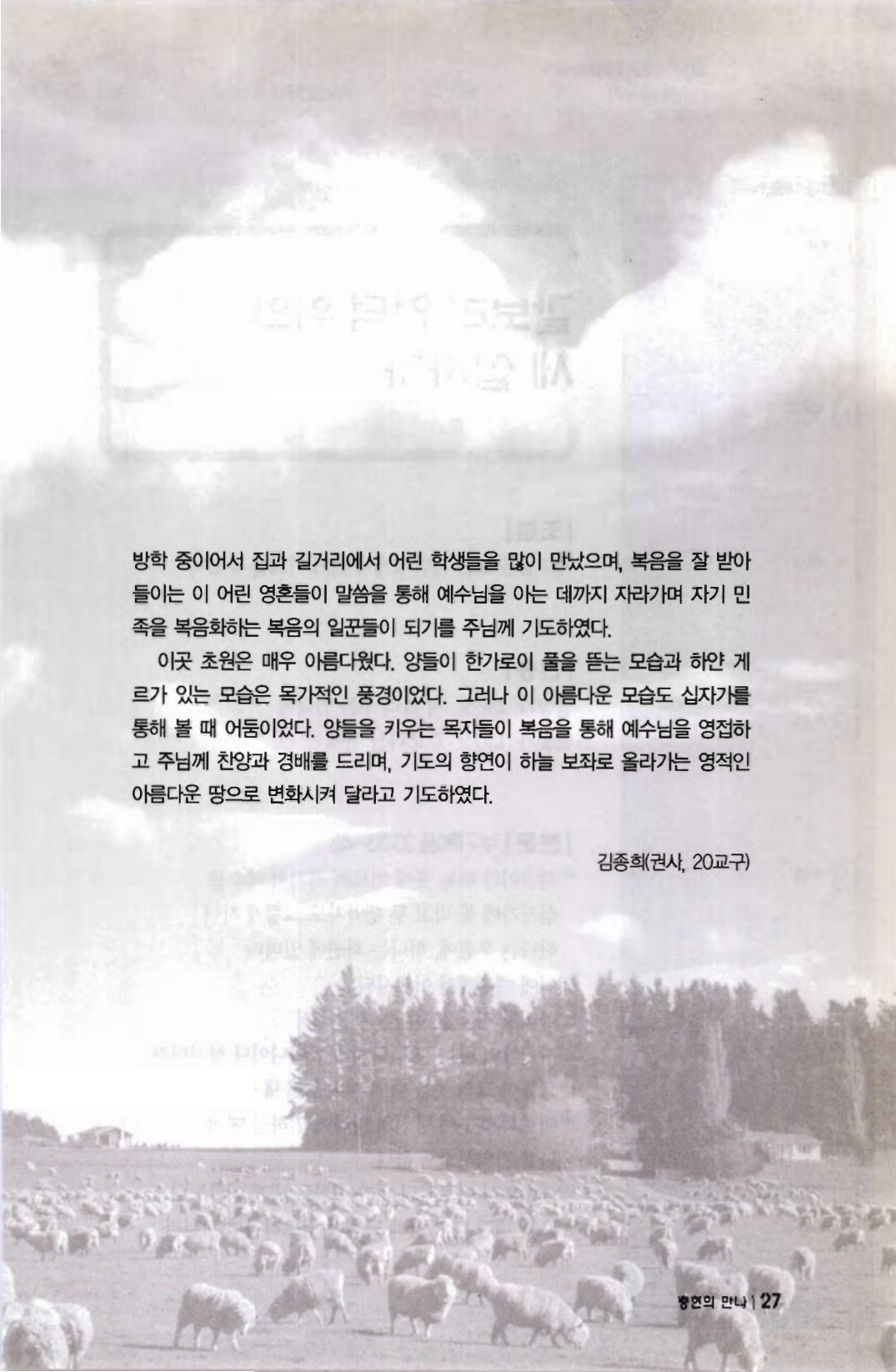
기도노트



십자가를 통해 볼 때

성도들의 기도 후원을 받으며, 앞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도구로 세우심에 감사하며 선교지로 향하였다. 주님께서는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모습에 기쁨도 갖게 하셨고, 때로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영적인 도전도 받게 하셨다. 그리고 성령님보다 앞서려 하는 나 자신을 보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셨다. 주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도록 하심에 감사드렸다. 94%가 불교인 이곳의 시골 목장과 탄광 마을에도 교회가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 들어 본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많음을 보고 주께서 이곳의 영혼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

어느 목장에서 한 집에 들어갔을 때 어두운 방 안에 담배와 마약을 피우는 4~5명이 모여 있는 모습에 우리는 당황하며 들어가야 할지 머뭇거렸다. 그러나 그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였다. 그들은 처음에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찬송을 부를 때 그들의 모습이 숙연해짐을 느꼈고, 다시 한 번 전도지를 내밀어 읽게 하였을 때 그들은 순종하였고 영접기도를 따라했다. 그들의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신 것이다.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순간이었다.



방학 중이어서 집과 길거리에서 어린 학생들을 많이 만났으며,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이 어린 영혼들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아는 데까지 자라가며 자기 민족을 복음화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께 기도하였다.

이곳 초원은 매우 아름다웠다. 양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는 모습과 하얀 게르가 있는 모습은 목자적인 풍경이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모습도 십자가를 통해 볼 때 어둠이었다. 양들을 키우는 목자들이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기도의 향연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영적인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였다.

김종희(권사, 20교구)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 에 체크하세요	
9	주일
10	월요일 ☐ 사사기 8장
11	화요일 ☐ 사사기 9장
12	수요일 ☐ 사사기 10장
13	목요일 ☐ 사사기 11장
14	금요일 ☐ 사사기 12장
15	토요일 ☐ 사사기 13장

갈보리 언덕 위의 세 십자가

2

| 초점 |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

| 찬송 |

찬송가 146장 저 멀리 푸른 언덕에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 본문 | 누가복음 23:33~43

⁽³³⁾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³⁴⁾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
⁽⁴²⁾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⁴³⁾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날, 십자가 세 개가 갈보리 언덕 위에 서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힌 두 범죄자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세 명 모두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마 27:38 _____

※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에 달린 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각각 설명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완전히 무죄였고, 나머지 두 사람은 완전한 죄인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범한 죄 값을 치렀고, 두 사람은 사회에서 범한 죄 값을 치렀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 아버지의 신성함을 대표하며, 두 사람은 세상의 죄를 대표합니다. 모두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세 십자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갈보리의 세 십자가를 살펴봅시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두 행악자

갈보리를 바라볼 때 여러분은 똑같은 판결을 받은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눅 23:33). 두 행악자는 죄를 범해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눅 23:39 _____

눅 23:40~41 _____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진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사회가 너무나 무섭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꿈쩍함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분, 교육, 돈, 성공 등으로 인류를 분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우리를 나누십니다.

롬 3:22~24 _____

※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와 자신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구원받기■ 원했다

갈보리를 바라볼 때 여러분은 두 사람이 예수님께 구원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편의 행악자가 토로하였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눅 23:39). 다른 편의 행악자도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눅 23:42). 두 행악자는 모두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 두 행악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다른 편의 행악자는 인생의 참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시인했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대하였으며, 동시에 자신의 부활도 기대하였습니다. 그는 수치를 받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그 속에서 왕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나쁜 일을 하는 데 허비했던 그가 죽기 직전에 자신의 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입니다.

롬 3:10 _____

골 2:15 _____

※ 내 삶에 역사하는 십자가의 은총과 능력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갈보리를 바라볼 때 여러분은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른 한 편의 행악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 23:43). 육신으로는 죽어가며 마지막 숨을 내쉬고 계셨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천국의 능력과 권위가 있었습니다.

※ 예수님을 믿은 행악자가 얻은 것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기 원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중에도 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바울은 낙원을 경험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말할 수 없는 것들, 곧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고후 12:4). 예수님은 다른 한 편의 행악자에게 자신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행악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신성과 사랑을 나타낸 최고의 증표였습니다.

눅 19:10

딤후 1:15

갈보리 언덕 위의 세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행악자들처럼 우리도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으며,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한 업적과 공로가 아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 다음의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 인간이 죽을 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 인간이 악한 삶을 산 후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 인간이 세례나 성만찬 없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 인간이 죽어 천국에 간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고후 13:5 _____

롬 5:1 _____

| 간절한 기도 |

- ① 매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회개의 삶을 살게 하소서.
- ②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하소서.
- ③ 종현의 모든 성도들이 보혈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자신과의 싸움

사사기 8장
찬송가 536장

목/창/노/트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자신들의 공로를 자랑하며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나 하고 불평하며 기드온과 싸우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모습과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는 기드온의 모습에 조금씩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1~12절). 개선장군이 된 기드온은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지만 왕에 버금가는 권력을 행사하였으며, 그들이 가져온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죄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24~27절). 또한 많은 아내를 취하여 70명의 아들을 낳은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방인 왕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이었습니다(29~32절). 그는 전쟁에서는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연약함을 드러내어 많은 유혹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기드온의 이와 같은 행동은 결국 그가 죽자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구해 준 기드온을 잊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말았습니다(33~35절).

하나님은 보리떡 한 덩어리와 같이 지극히 평범한 그를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셨지만, 그는 결국 교만하여져서 모든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취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에게도 가장 큰 유혹은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망대를 헐리라(9절) : 브누엘 성을 파괴하겠다는 말로 이는 교만한 브누엘 사람들에게 대한 기드온의 심판 선언이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삿 8:23)

기도제목

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취하는 악한 행실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내 인생의 주인

11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죄를 짓고 혼란에 빠집니다. 이 혼란을 틈타 왕이 되려는 열망에 사로잡힌 아비멜렉은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기드온의 아들인 그는 왕이 되기 위해 혈연과 지연을 이용하여 자금을 마련하고,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반석에서 죽이고, 드디어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1~6절).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 간신히 살아남은 요담은 나무 우화를 통해 아비멜렉의 불의한 왕권과 그를 왕으로 추대한 세겜 사람들의 잘못을 정죄합니다(7~21절). 요담이 나무 우화를 빗대어 예언한 대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불의한 공모는 무너지고, 서로 배반을 거듭하면서 비극적인 피의 보복을 불러일으킵니다(22~45절). 결국 세겜 사람들은 불타 죽고, 아비멜렉 역시 무명의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힘없이 죽고 맙니다(46~57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자주 망각합니다. 기드온은 부족 한 자신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잊고 마치 전쟁에서 스스로 싸워 이긴 것처럼 여겨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버린 것이 결국 그의 아들에게 헛된 욕망을 심어주는 결과를 낳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묻게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가? 아니면 내 안에 살아가시는 예수님인가?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은 사라지고, 내 인생을 방해하려는 예수님만 있게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삿 9:14)

사사기 9장

찬송가 436장

목/상/노/트

•가시나무(14절) : 팔레스타인 언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친 가시덤불을 말하는데, 이것은 농사짓는 데 장애 요인이 될 뿐 아니라 값어치 있는 것이라곤 아무 것도 생산해 내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의 인물됨을 비유하는 데 적합한 나무였다.

기도제목

① 주님께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소서. ② 충현의 재단들(유지·동산·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12

태평성대의 위험

사사기 10장
찬송가 287장

목/창/노/트

돌라와 야일은 사회를 안정시키고 부요를 가져다주는 지도력을 보였지만, 개인적으로는 지나친 사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야일이 30명의 아들에게 30마리의 나귀와 30개의 성읍을 맡긴 것은 당시 사사와 그 후손들의 권력과 부요가 매우 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1~5절). 그러나 이러한 풍족함도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17~18절).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자손을 암몬 족속에게 팔아 18년 동안 학대를 받게 하십니다(6~9절). 이스라엘은 이에 다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요청을 거부하십니다(10~14절). 그러나 하나님의 거부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못난 자식을 둔 아버지처럼 울부짖는 자식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15~16절).

조금 살만하면 죄를 짓고 또다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은혜를 달라고 구할 때는 목숨까지도 바칠 것 같이 구하면서도 막상 은혜를 받고나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위기 때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기회주의적인 기복신앙을 가진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들을 향해 그들을 구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식의 고통을 보시면서도 그 근원적인 악을 뿌리 뽑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다면 우리는 죄악으로부터 돌아켜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부와 명예, 권력에 있으면 절대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입니다.

• 미스바(17절) : '망루'란 뜻으로, 뽕 산에서 동쪽으로 약 50km 떨어져 있다. 이런 이름을 가진 장소는 여러 곳 있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사 10:13)

기도제목

① 나에게 있는 평안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물질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1·1·1)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딤후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추방당한 사람

13

사회적으로 추방당하여 산적 노릇을 하던 입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집니다(1~3절). 암몬의 군사적인 위협 앞에서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 외에는 대안이 없음을 알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4~6절).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과 약속을 맺고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7~11절). 그는 암몬과의 전투에 앞서 암몬 왕과 협상을 제안합니다. 암몬 왕이 과거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영토는 잘못된 역사 이해로 인해 생긴 것이며, 원래 이스라엘의 땅이 맞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이해시킵니다(12~28절). 입다는 전쟁터로 나가기 직전, 승리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서 성급한 서원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서원으로 인해 자신의 딸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29~40절).

입다는 사회적으로 추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다시 불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운다는 것은 보통 힘든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위대한 전쟁 영웅들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낙오자, 여인, 비천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 받았는가가 역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용사가 되고 사사가 되는 것이 지 그가 잘 나서 사용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입다 또한 그러한 사람 중의 한 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입다는 전쟁에 심취되어 헛된 맹세를 하고 말았습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승리를 안겨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말 소중한 것을 잃게 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승리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한지라(삿 11:2)

사사기 11장

친승가 457장

독/창/노/트

• **번제물(31절)** :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로 여겨졌다(레 18:21; 신 12:29~32; 18:9~12)

기도제목

① 모든 일에 있어서 나를 믿지 않고, 주님을 믿는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소서. ②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하나님의 적

사사기 12장
찬송가 263장

목/상/노/트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입다에게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을 소외시킨 입다와 그의 집을 불사르겠다고 위협합니다(1절).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에게 참전을 부탁받았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힘이라도 함께 모아야 할 때는 구경만 하다가 일이 성공한 후에는 그 공로를 빼앗으려는 야비한 행동입니다(2~3절). 입다는 자기 동족인 길르앗 사람들을 향해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4절)라고 조롱하는 자들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요단 나루턱을 장악한 채 “십볼렛”을 “십볼렛”이라고 발음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인 것입니다(4~6절). 입다가 죽은 후에는 세 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입산과 압돈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행위보다 그들의 치부와 권력에 대한 기록만 남았습니다(7~15절).

에브라임 지파는 사사기 8장에서 사사 기드온에게 자신들의 공을 내세우며 전쟁에 부르지 않은 이유를 따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 또 입다의 승리를 향한 그들의 시기와 질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사란 본래 자기 백성을 치고 죽이는 자가 아니라, 남의 백성과 민족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자기 백성을 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적이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외부든 내부든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적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서게 하는 자로다”(마 16:23)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열심이 주님의 뜻을 넘어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열심과 나의 의는 우리 내부에 숨겨진 하나님의 적입니다.

• 십볼렛(6절) : ‘금류’라는 뜻으로, 여린 시옷(ㅅ)을 발음하지 못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언어적 특성을 이용한 것이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삿 12:2)

기도제목

① 내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하다가 자기 의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2011년 제3차 청지기훈련(10월 28일 금요일, 7시)에 모든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여 참석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내 이름은 기묘자라

15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역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 넘겨 40년 동안 지배를 받게 하십니다(1절). 그러나 하나님은 극심한 곤경에 빠진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하시기 위해 구원자를 보낼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랫동안 불임의 고통을 겪던 한 여인을 방문하셔서 아이를 잉태할 것을 약속하시는 것으로 드러납니다(2~7절). 하나님은 이 아이를 나실인의 규정을 따라 길러야 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즉,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털을 밀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8~14절). 아버지 마노아는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 준 손님을 대접하려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되고, 기묘자이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15~25절).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불임으로 고생하는 한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새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심으로 가장 절망이 깊은 시간에 희망의 미래를 열어주셨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며, 이스라엘의 구원은 결국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대로 움직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경험과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기묘'라고 소개하십니다. 기묘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신비한 것이라는 뜻을 가진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진실로 그분을 기묘자로서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와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사 13:18)

사사기 13장
찬송가 413장

목/창/노/트

• 내 이름은 기묘자라(18절) : '기묘'라는 말은 '비밀의 신비한, 오묘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신성을 나타내는 말로서 천능하신 하나님께 사용된다.

기도제목

①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무슨 말씀에든지 순종케 하소서. ②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양로원·함양충현농원) 및 준공된 사랑관과 자연장(납골시설)이 이웃 사랑의 열매(로 15:2)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왜 복음이 감추어졌는가?

(고린도후서 4:3~4)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롬 1:16~17) 복음은 신화가 만들 수 없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만들 수 없는, 죄를 속죄하 시는 기쁜 소식이다(고전 1:17~18). 복음 안에는 철학이 주는 지혜나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보다 더 풍성한 지혜와 기쁨이 있다(고전 2:7~9). 복음은 시작 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골 1:26~27). 우리의 초점은 죄 사함을 위하여 속죄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맞추어져야 한다.

●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이 감추어져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하는 자는 복음을 이해할 수 없다(고전 2:5). 복음은 복잡하지 않다(고전 1:27~30). 복음이 가리어진 이유는 복음이 불투명 하고 모호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딤후 1:15~16 ; 요 3:36).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는 어떠한 교육도 필요치 않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롬 1:23~25 ; 요 3:16). 모세가 들어 올린 놋뿔을 쳐다본 자만이 살아났듯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십자가에 달려 들림을 받은 그리스도를 믿는 길뿐이 다(행 16:31 ; 골 2:20,23). 영적으로 처절한 빈곤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 고, 영혼의 갈급함을 느낄 때 비로소 복음의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다(눅 18:17).

● 복음이 가리어진 자들의 상태는 어떠한가?

복음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졌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망한 자다.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영원히 잃어버린 자가 된다(롬 10:9~11). 구원은 구원받은 자와 잃어버린 자 중 하나다(계 20:12~15). 지금은 죄인이지만 죽기 전에 구원받으려 하는 이중생활을 하는 신자들이 있다(골 2:6~8). 만일 자신의 구원에 의심이 든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죄를 고백하고 보혈을 믿어야 한다(고후 5:17~19).

● 복음이 가리어진 자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신들은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지도록 눈을 덮는다(요일 2:15~17 ; 빌 3:18~19). 그래서 우리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마귀를 사랑한다(고후 11:13~15). 인간이 존경하고 경배하는 자의 훌륭한 옷차림 속에 마귀가 들어 있다(고후 4:3~4). 이 세상의 신은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린다(눅 9:25~26).

두 세계를 바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 모두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다(롬 3:9~12).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한 분, 예수의 이름뿐이다(롬 3:22~24). 어두워진 눈에서 비늘이 벗겨질 때 죄와 구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볼 수 있다(빌 3:20~21). 영원토록 변치 않고 계속되어질 영광과 존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찾을 수 있다. 죽음이 우리를 불러 하나님 존전에 서게 될 때 복음이 가리어지지 않은 증거자로 서게 되기를 바란다. 아멘.

2011년 제2차 청지기훈련 메시지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 에 체크하세요	
16	주일
17	월요일 ☐ 갈라디아서 1장
18	화요일 ☐ 갈라디아서 2장
19	수요일 ☐ 갈라디아서 3장
20	목요일 ☐ 갈라디아서 4장
21	금요일 ☐ 갈라디아서 5장
22	토요일 ☐ 갈라디아서 6장

다
이루었다!

3

| 초점 |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다

| 찬송 |

찬송가 148장 영화로운 주 예수의
찬송가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 본문 | 요한복음 19:30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종려주일 후 며칠 뒤, 예수님께 환호했던 군중은 돌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호산나”의 소리가 미처 잠잠해지기도 전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막 15:13 _____

※ 가상철연을 정리해 보십시오.

① 눅 23:34 _____

② 눅 23:43 _____

③ 요 19:26~27 _____

④ 막 15:34 _____

⑤ 요 19:28 _____

⑥ 요 19:30 _____

⑦ 눅 23:46 _____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총 일곱 번 말씀하신 것 중에 여섯 번째인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에 담긴 참된 의미는 무엇 일까요?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성취의 말씀

“나 이루었다”는 성취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완성자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창조를 이루셨고(창 2:2),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계 21:1~6)하셨으며 인류의 구속까지 성취하셨습니다.

※ 예수님이 구속을 성취한 곳은 어디입니까?

골 2:13~15

예수님은 모든 구약성경의 불완전한 제사들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린 단번의 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 히브리서 10:9~18 말씀을 읽고,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보십시오.

요일 1:7

※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구원이 나에게 어떤 은혜로 다가오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승리의 말씀

“다 이루었다”는 승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크게 울부짖으며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마 27:50).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막 15:37).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눅 23:46). 이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패배의 탄식이 아닌 승리의 탄성이었습니다.

※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왜 승리의 탄성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사탄과 모든 악한 영들은 갈보리에서 패배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골 2:15). 무리는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신을 구원하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자신의 부름에 응할 천사의 군대가 있었음에도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는 여섯 번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성취에 대해서 조사해 보십시오(P. 86~87 참조).

기독교에 이제 더 이상의 패배는 없습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화목의 말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화목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 값은 완벽하게 지불되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자기의 죄 값을 치르지 못해 반드시 지옥에 가야만 하기에 걱정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 값을 치르셨기에 여러분은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한 마디는 모든 신자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합니다.

골 1:20~22

인간에게 완전한 평화를 가져다 줄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은총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했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다 이루었다”를 이해할 때 놀라운 평화가 깃듭니다. 구약 때는 몰랐으나 이제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에 의한 신적 계시로 알게 된 비밀이 오직 예수의 구원사역의 완성 때문에 신자들에게 알려진 바 되었습니다.

골 1:26~27 / 이 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 너희 안에 계신 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엡 2:14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죽어가던 강도가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였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의 마음에 얼마나 놀라운 평화가 깃들었을까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도 모두 지불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으십시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그가 이루신 사역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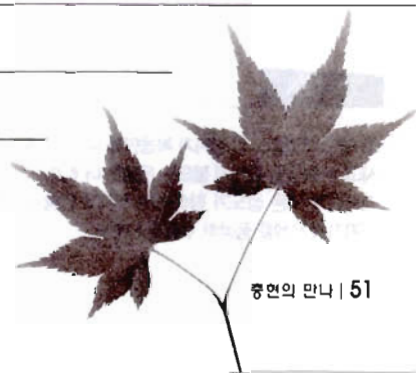
요 19:30 /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_____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여섯 번째 말씀이 중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무언가를 더 원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성공과 부를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 강도는 주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강도를 바라보면 주님이 그를 위해 다 이루셨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 간절한 기도 |

- ①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사역을 믿게 하소서.
- ② 매 순간 회개하며, 모든 초점을 그리스도께 맞추게 하소서.
- ③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찬송가 254장

목/창/노/트

• 교란(7절) : '타락소'라는
원어로 뒤흔들다라는 의미
에서 파생되어 '전동하고
어지럽히고, 불안하게 한
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성경 속에서 이 용어는 동
요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
동태에서는 항상 부정적인
의미로 두려워하다라는 의
미를 가진다.

갈라디아의 남부 지역인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의 여러 교회들은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이며, 갈라디아서는 이 교회들을 향하여 기록된 편지입니다. 인사를 마친 바울은 편지를 쓰는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인사말에서 밝히고 있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이야기한다면 그가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이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기 위하여 바울은 펜을 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결코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음을 그들이 알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이 일을 위하여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데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 복음입니다.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하면서 그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 다른 복음은 10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신앙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 변질되지 않았는지, 아니 처음부터 그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갈 1:4)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끝까지 붙드는 은혜를 더 하소서. ② 월요 새벽 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줍니다. 바울은 할례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 자유를 분명히 선언하기 위하여 자신과 함께 한 헬라인 디도를 할례 받지 않게 하였음을 말합니다. 할례의 문제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베드로가 할례자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면,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음을 당당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베드로와 바나바까지도 복음 안에서 외식하는 모습을 보인 것을 책망하고 온전히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해야 함을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는 어떤 외식도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율법에 대하여 자신이 죽었다고까지 말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음을 알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자기 자신이 부인되는 자들입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유대인들이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할례나, 부정하게 생각했던 이방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내 신앙의 의로움으로 생각됩니까? 내 신앙의 의로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어리석은 일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갈라디아서 2장

찬송가 295장

목/상/노/트

• 외식하다(13절) : 배우의 행위로써 무대에서 대답하거나, 가장하다. 혹은 꾸미다라는 의미의 단어 '휘포크리노마이'에서 나온 표현이다. 이 표현은 본질과 겉 20:20에 '~인 체하며'라는 표현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이는 '~인 것처럼 행동하다'는 의미로 '가장하다'는 의미에 가깝다.

기도제목

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소서. ② 2011년, 충현의 모든 성도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요 3:5)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기도노트

율법과 약속

갈라디아서 3장
찬송가 546장

목/상/노/트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구원의 자녀가 된 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직접적인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믿음의 결과임을 말해 줍니다. 곧 아브라함의 의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기에 이후에 모든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 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의 구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합니다. 이는 결코 율법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그 약속은 후에 주어진 율법보다 앞선 것입니다. 율법은 초등교사로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할 뿐이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성도들이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때도 율법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살피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같은 삶이 오늘 우리를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할 것이며, 모든 차별과 구별을 없애고 한 소망을 가진 자들로 세울 것입니다. 율법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초등교사(25절) : 파이다고 고스'로 이는 파이스(아이)와 아고(인도하다)라는 두 단어에서 유래하였다. 이들은 노예들로 아이를 책임지고, 관리하고, 돌보고, 학교에 오고 갈 때 그들을 인도하였던 사람들을 말한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갈 3:22)

기도제목

①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내어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은총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기도노트

아빠 아버지

20

복음 율법 아래에서 종 노릇 하던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제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어찌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다시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려 하는지를 통탄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며 바울의 연약함까지도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자꾸만 다른 복음, 곧 율법의 의를 생각하면서 바울에 대해서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온전히 복음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 곧 여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과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 율법과 믿음을 비유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서 성령을 따라 난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들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결코 아버지라 부르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도를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 아니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결코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을 내는 것이 만약 이 놀라운 은총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실로 감사한 것이나, 만약 우리의 열심이 우리로 하여금 이 은총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권리를 가진 자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갈 4:6)

갈라디아서 4장

찬송가 407장

목/창/노/트

• 비유(24절) : '일레고레오'라는 표현으로 이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사용된 '파라볼레'에서 파생된 비유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표현이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본래의 뜻은 감추고, 나타나 있는 것 이상의 깊은 뜻이나 내용을 미루어 살펴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도제목

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됨을 더 깊이 체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②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기도노트

21

갈라디아서 5장
찬송가 268장

목/창/노/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는 바울의 음성은 분명하면서 단호합니다. 이는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협상도 어떤 타협도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제 이 복음을 저버리고 율법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어지럽히는 자들을 누룩처럼 경계하여 스스로 베어 버리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성도가 복음 안에서 자유자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를 말합니다. 이것은 결코 율법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하여 주어진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가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열매는 곧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사는 자들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일을 싫어하는 것 같고, 멀리하는 것 같으나 그들이 맺는 열매는 이것들과 완전히 닮아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의 일들을 싫어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대하여 완전히 죽어 버린 자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좋은 나무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갈 5:24)

• 소옥(17절) : 16절의 욕심이라는 표현과 동일한 용어로 '충동, 욕망, 갈망'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그 사용에 있어서 철저하게 인간의 본성과 관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기도제목

① 성령을 따라 행하여 살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눅 2:36)를 통하여 금요 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성도의 자랑

22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도 결코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그는 성도들에게 서로 짐을 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중 온전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온전하다고 말한다면 이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에 이르러 직접 큰 글자로 다시 한 번 할례와 그리스도의 은총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밝힙니다. 바울 역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또 바울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이것만을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자랑은 그들이 이룬 세상의 영광입니다.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자랑은 자신들이 행한 율법의 의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죽음에 이르는 자랑일 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생명을 줄 수 없는 헛된 영광이며,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마는 어리석은 자랑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세상이 미련하다고 외면하고, 어리석다고 무시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성도는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나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성도는 오직 십자가밖에 모르는 자들이기에 그들의 삶은 생명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갈 6:14)

갈라디아서 6장

찬송가 315장

묵/상/노/트

• **업신여김(7절)** : 하나님께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표현에서 업신여김이라는 표현은 '코를 비틀다, 경멸적으로 취급하다, 코웃음치다, 비웃다, 경멸하다'를 의미하는 '뤼테리조'라는 표현이다. 바울은 성도가 자신의 삶의 태도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가리키는 데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기도제목

①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동안의 청지기훈련을 돌이켜보면 기대로 설레기보다는 여느 금요찬양집회 때처럼 '말씀 듣고 찬양하고 출석만 하면 되지'라는 생각뿐이었다. 문득 '이런 나의 모습을 본 주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문제는 나한테 있었는데, 내가 마음을 열지 않고 시간만 보내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는데... 선포되어질 말씀을 보니 '왜 복음이 감추어졌는가?' 이기에 점점 복음의 진리가 퇴색해져 가는 이 시대에 꼭 들어야 하고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되어 이번만큼은 결코 헛되게 보내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찬양연습 시간에 맞춰 일찍 교회에 갔다.

드디어 시작!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속으로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



라고 기도드렸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 이 말씀이 지금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오고 있었다. 복음이 가리어진 사람들의 내용을 보니 어쩌면 이리도 나의 현재 상황과 닮았는지? 입술로는 영혼 구원을 말하면서 세상적인 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양다리 걸쳐 생활하는 나. 주님을 믿고 따르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라고 하면서 정작 내가 복음을 감추는 자는 아닌지?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었다.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 비는 내리고 차가 너무 막혀 짜증이 나려고 하는 순간, 이것도 마귀가 날 시험하는 것 같아 차 안에서 기도드렸다. “주님, 오늘 들은 말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 주시고 복음을 감추는 자가 아닌,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 주세요. 오늘의 말씀이 도전이 되어 나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되길 소망하오니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용열(집사, 10교구)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 6:1~23

갈보리 언덕 위의
세 십자가

누가복음 23:33~43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30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시다

창세기 12:1~3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39~43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23 주일

24 월요일

☐ 에베소서 1장

25 화요일

☐ 에베소서 2장

26 수요일

☐ 에베소서 3장

27 목요일

☐ 에베소서 4장

28 금요일

☐ 에베소서 5장

29 토요일

☐ 에베소서 6장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시다



| 초점 |

아브라함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다

| 찬송 |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송가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 본문 | 창세기 12:1~3

①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②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③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인류가 바벨탑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후에, 하나님은 아브람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사방으로 흩어지라 명하셨습니다, 오히려 인류는 바벨탑에 모여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인류를 순종시키려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 창세기 1~11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십시오.

바벨탑 사건 후, 세상의 혼란 중에 하나님의 명백한 부르심이 아브람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키셨습니다. 오늘 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은총을 갈구하는 개인들과 민족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아브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시다.

※ 아브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사해 보십시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믿음의 삶

하나님은 아브람을 믿음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창 12:1). 아브람은 우르 땅에 사는 부자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을 풍족한 가운데서 불러내신다면 여러분은 떠날 수 있습니까? 아브람은 익숙하던 곳에서 떠나 전혀 모르는 곳으로 가라고 요구받았습니다.

※ 아브람의 믿음은 무엇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자신에게 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명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여행 중에 그는 자신의 친족 사이에 분쟁이 커지는 것을 막았습니다(창 13:8~9). 아브람은 하나님만 신뢰했을 뿐 부나 세상이 더 좋은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모든 소산의 십분의 일을 드리는 십일조를 드렸습니다(창 14:18~20). 아브람은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창 14:21~23 _____

계 14:12 _____

풍성한 삶

하나님은 아브람을 풍성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창 12:2). 신자들은 순종할 때 항상 열매를 맺습니다.

※ 아브람의 열매(히 11:8~12)가 어떠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아브람을 만족하게 한 것은 믿음뿐이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기쁨 가운데 참된 만족은 믿음의 삶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늘의 문에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손의 이름은 심지어 예수의 계보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브람은 아직도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가 이 땅과 천국에서 누린 풍성한 삶은 믿음의 보상입니다.

계 21:12

마 1:1

※ 풍성한 삶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나누어 보십시오.

거룩한 교제의 삶

하나님은 아브람을 거룩한 교제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창 12:3). 아브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아주 친밀했기에 그를 축복하거나 저주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축복하거나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하 20:7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는 약속이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아브람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됩니다.

갈 3:8

갈 3:16

※ 로마서 4:18~24 말씀을 읽고 요약해 보십시오.

아브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받은 축복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 11:28~30).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나와 말씀에 따라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아브람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 다음의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 아브람처럼 믿음으로 응답할 것입니까?
-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될 것입니까?
-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사 55:1 _____

호 6:1 _____

| 간절한 기도 |

- ①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 ② 복음에 순종함으로, 복음의 은총으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소서.
- ③ 매 순간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신령한 복

에베소서 1장
찬송가 270장

목/상/노/트

감옥에서 기록되어 옥중서신으로 불리는 서신서(에베소서, 빌립 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중의 한 편인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복은 그가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신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자들로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모습은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라 함은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살리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기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자신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간접적이지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곧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지 그들이 알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복은 세상이 말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놀라운 복입니다. 이 복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를 이루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영광은 결코 세상적인 어떤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영광이 그러하듯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엡 1:13)

• **속량(7절)** : '적방, 면제, 용서'를 의미하며 이는 직무나 의무, 빛이나 행법로부터 면제를 의미한다. 신약 속에서 이 표현은 해방과 죄 사함을 의미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기도제목

①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기업의 보증이 되신 예수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모퉁잇돌

25

편지를 쓰는 목적을 분명하게 말한 바울은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교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음을 밝히고 이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구원입니다. 결코 우리의 행위로 받은 구원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것을 에베소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화평하게 하시는 자로 모든 막힌 것을 허시고 그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실로 그리스도께서 건물의 모퉁잇돌이 되셔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한 건물을 이루는 자들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지적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철저하게 외인들이었습니다.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높고 낮음의 모든 차별이 사라지고 성도로서 한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성도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화목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엡 2:20)

에베소서 2장

찬송가 210장

목/상/노/트

• 모퉁잇돌(20절): '아크로코니아(이오스)'라는 표현의 인용어는 성경에만 나오는 표현이다. 이는 아크론(가장 높은, 맨 끝)과 코니아(모퉁이의 합성어로 맨 끝 모퉁이에 놓여 있는, 머릿돌, 혹은 모퉁이돌)을 의미한다.

기도제목

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② 청지기훈련을 준비하는 모든 일꾼들의 심령에 복음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기도노트

26

에베소서 3장
찬송가 499장

목/상/노/트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 복음!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바로 이 복음을 깨달아 알았음을 말합니다. 그는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여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으므로 교회는 온 우주를 향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인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환난 가운데 있음으로 낙심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이 놀라운 복음의 사역에 있어서 오히려 그들의 영광이지 결코 근심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여 지기를 위하여 바울은 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임을 분명히 알았던 바울은 교회의 사명 또한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사명을 복음 전파가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높이는 데 두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를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잊어버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와 교회의 사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성도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 **경륜(9절)** : '오이코노미아'라는 표현으로 '관리, 경영, 행정'이라는 의미이다. 신약성경 속에서 이 표현은 가정을 관리하는 책임과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엡 3:7)

기도제목

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② 청지기훈련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회개하고, 복음 안에 거하도록 은혜를 주소서.

기도노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선포하고,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각 사람의 분량대로 교회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성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경건의 모습이 그의 삶 속에 드러나야 합니다. 바울은 그 구체적인 삶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의 한 지체로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한 지체로서 거짓을 버려야 하며, 분내지 말아야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하고, 더러운 말이 아니라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곧 모든 악한 것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로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는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는 어떤 율법이나 외식하는 모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옛 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육체의 정욕과 육신의 자랑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에 남을 용서하면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엡 4:1)

에베소서 4장
찬송가 421장

목/상/노/트

• **허망(17절)**: 텅빈, 공허, 무익, 무가치라는 의미 등을 내포하고 있는 표현이다. 이는 신약에서 3번 나오는 표현인데 롬 8:20의 '허무'와 이 말씀에서의 '허망' 그리고 벧후 2:18의 '헛된'에 해당되는 표현이다.

기도제목

① 새 사람 되게 하소서, 새 사람을 입고 이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② 2011년 제3차 청지기훈련(10월 28일 금요일, 7시)에 모든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여 참석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빛의 자녀

에베소서 5장
찬송가 330장

목/창/노/트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말합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악 된 일 곧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버리고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바울은 성도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지혜는 우리에게 허락된 세월을 아끼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때가 악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아내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할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삶의 윤리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삶의 원리는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한 날의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면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사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너무도 짧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너무도 악합니다. 우리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어떠한 이름으로 불리든지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 누추함(4절) : '하이스코로 데스'라는 표현으로 부끄러운이나 수치를 나타낸다. 이 말씀에서 한 번 등장하는 이 표현에 대해 KJV, NASB는 '추잡함'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엡 5:8)

기도제목

① 지혜를 허락하셔서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성령충만하게 하소서. ② 제3차 청지기훈련을 통하여 은혜 안에 거하며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죄사슬에 매인 사신

29

성도의 삶 구체적으로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과 상전의 위치에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자녀와 부모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주를 섬기듯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대하는 것이 바로 종과 상전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같은 빛의 자녀의 삶을 구체적으로 밝힌 후에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이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인 전쟁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며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는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기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서로를 위하여 간구해야 합니다. 편지를 마치면서 바울은 자신으로 하여금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빛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이 영적인 전쟁임을 말한 바울은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에 있어야 합니다. 어둠의 자녀들과 같이 세상의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엡 6:19)

에베소서 6장
찬송가 502장

목/창/노/트

• **간개(11절)** : '절차나 방법, 음모, 교활함, 계계'를 의미하는 '메도데이아'의 역어로써, 에베소서 4:14에 나오는 '속임수'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위협을 의미한다.

기도제목

①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죄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어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을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오직 성경 · 오직 은혜 · 오직 믿음

15세기 말부터 16세기 초 중세 유럽은 그야말로 암흑기였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혼돈 속에 대중들은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종교적인 타락이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원을 개인의 최선의 행위를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순례, 구걸, 성자와 성물 숭배와 같은 것들이 지나치게 강조되었습니다. 교회와 수도원은 한술 더 떠 성인의 뼈나 머리털을 수집하여 진열하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죄를 면하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판매된 '면죄부' 증서는 타락의 극치였습니다.

이에 마틴 루터가 면죄부와 교황의 잘못을 지적하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城) 내의 교회에 게시함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루터는 인간의 죄로 인해 받아야 할 모든 벌이 교황의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면제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인간은 선행에 의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이신칭의 [이



信稱義 :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따라서 종교개혁의 정신은 오직 성경(sola scriptura) · 오직 은혜(sola gratia) · 오직 믿음(sola fide)으로 요약됩니다.

지금 우리는 16세기 초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때보다 더 타락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종교 다원주의라는 '면죄부'에 모든 종교인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가'보다 '어떻게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가 모든 사람의 관심사입니다.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딤후 3:5).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성경, 은혜, 믿음뿐입니다. 개혁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십시오(마 16:24).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 6:1~23

갈보리 언덕 위의
세 십자가

누가복음 23:33~43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30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시다

창세기 12:1~3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39~43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30 주일

31 월요일

☐ 빌립보서 1장

1 화요일

☐ 빌립보서 2장

2 수요일

☐ 빌립보서 3장

3 목요일

☐ 빌립보서 4장

4 금요일

☐ 골로새서 1장

5 토요일

☐ 골로새서 2장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5

| 초점 |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 찬송 |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찬송가 608장 후일에 생명 그칠 때

| 본문 | 누가복음 23:39~43

⁽³⁹⁾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⁴⁰⁾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⁴¹⁾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⁴²⁾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⁴³⁾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양 옆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는 모두 하나님 앞에 유죄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곧 죽게 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생의 마지막 순간, 한 사람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두 행악자 모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 대해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군중과 지도자들의 비웃음도 들었습니다.

눅 23:34 _____

눅 23:35 _____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며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리”(눅 23:39)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의 행악자는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눅 23:40~41)고 그를 꾸짖었습니다. 이 행악자는 예수님의 기적이나 사역을 본 적이 없는 상태로 죽음의 문턱에 있었기에 구원을 받을 가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관해 실제로 목격한 것은 오직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뿐이었지만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이 행악자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행악자는 용서받았다

이 행악자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용서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행악자의 이름, 나이, 심지어 죄목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지막 순간에 그의 영혼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행악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눅 23:40~41

이 행악자는 진심으로 주 예수님께 기도하였고, 그의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그는 죄 사함과 아울러 새 생명의 약속에 대한 보장을 받았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 23:43).

※ 행악자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죄 사함의 은총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요일 2:12

행악자를 위한 것이다

이 행악자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이 행악자는 결코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며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뿐이었습니다.

※ 행악자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을 써 보십시오(눅 23:42).

※ 행악자의 믿음이 대단한 이유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요 20:29

공생애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반면 이 행악자는 평생 죄만 짓고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경배하며 찬양했습니다. 이 행악자는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이루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이전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평생 예수님을 모르던 자가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다니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은 인간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마 6:30~31

마 17:17

행악자는 낙원에 갔다

이 행악자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낙원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 23:43). 모든 신자는 죽어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행악자에게는 완전한 평안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죽지만 곧 천국에서 살리란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천국의 약속을 믿어 해결된 것입니다!

요 5:29 _____

요 11:25 _____

행악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가심을 보았으나 여전히 그분을 믿었습니다 (눅 23:43). 영원의 세계가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죽어도 아무 일도 없으며, 단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빠져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죽으면 무의식의 세계로 쏙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식이 없이 잠자는 영혼은 없으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육체는 부활할 것입니다. 구원은 자기 사역이나 종교적 행위는 물론 업적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행악자를 보십시오. 그는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할 시간도 없지 않았습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얻습니다.

벧전 1:9 _____

계 2:7 _____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상황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고 믿으십시오. 우리의 경험과 지식, 자존심은 우리의 초점을 흐리게 하며 결국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 23:43).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막 10:52 /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이 너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히 10:39 _____

| 간절한 기도 |

- ①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예수님을 믿게 하소서.
- ② 자존심과 교만을 버리고 매 순간 복음 안에 살게 하소서.
- ③ 예수님과 관계 맺는 매 순간이 되게 하소서.





성도의 고난

빌립보서 1장
찬송가 336장

목/상/노/트

• **총명(叅明)** : '하이스테시스'라는 표현으로 '지각, 이해'를 의미한다. 명사로서 이 표현은 이 말씀에서만 나타나는데 바울은 지식과 총명(인지, 통찰)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지식을 하나님께 대한 것, 그리고 총명을 참된 통찰력으로 인간 관계에 대한 것으로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먼저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한 때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이같은 헌신과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이어지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매여 있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매인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삶의 최우선은 어찌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살든지 죽든지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삶의 소망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 안에서 그는 이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결코 평온한 생활이 아니라 고난도 기꺼이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염려하는 것조차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무엇 때문에 고난 받는 삶입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입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삶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는 감사의 제목이 복음이며 염려와 간구의 제목이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빌 1:29)

기도제목

- ① 우리에게 있는 싸움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되게 하소서.
- ②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주요 내용 요약

주요 내용 요약

주요 내용 요약

주요 내용 요약

주요 내용 요약

주요 내용 요약	주요 내용 요약	주요 내용 요약
주요 내용 요약	주요 내용 요약	주요 내용 요약
주요 내용 요약	주요 내용 요약	주요 내용 요약
주요 내용 요약	주요 내용 요약	주요 내용 요약
주요 내용 요약	주요 내용 요약	주요 내용 요약
주요 내용 요약	주요 내용 요약	주요 내용 요약
주요 내용 요약	주요 내용 요약	주요 내용 요약
주요 내용 요약	주요 내용 요약	주요 내용 요약
주요 내용 요약	주요 내용 요약	주요 내용 요약
주요 내용 요약	주요 내용 요약	주요 내용 요약



제44대 장로 피택자 주제 발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재림, 그 예언과 성취

●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성경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다(요 5:39).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다(딤후 3:15).

●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예언과 성취

하나님의 독생자의 신분에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유일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막 10:45).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롬 5:21).

	죽음과 부활	구약 예언	신약 성취
1	하나님의 아들	시 2:7	마 16:16 ; 히 1:5 ; 벧후 1:17
2	약속된 대속자	시 130:7~8 ; 사 59:20	갈 4:4~5 ; 딤후 2:13~14
3	예수님은 조롱받으시며 매 맞으신다	사 50:6 ; 미 5:1	마 26:67
4	예수님은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하신다	사 53:9,12	막 15:27
5	우리의 질고와 슬픔 때문이었다	사 53:4~5	마 8:17 ; 히 13:12
6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신다	사 53:10~11	롬 6:23 ; 엡 1:7
7	예수님은 부자와 함께 매장되신다	사 53:9	마 27:57~60
8	죽음에서 살아나신다	시 16:10~11	눅 24:6~7 ; 행 2:32
9	부활로 죽음을 정복하신다	시 86:13	행 2:24 ; 고전 15:3~4
10	사망이 멸망 당한다	사 25:8 ; 호 13:14	고전 15:54~57 ; 딤후 1:10

●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 그 예언과 성취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사역은 형언할 수 없는 은혜! 은혜의 연속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만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마 28:18~20).

	승천과 재림	구약 예언	신약 성취
1	죄 없으신 양이 인도하신다	사 53:7~8	요 1:29 ; 뱀전 2:25
2	높은 곳에 오르신다	시 68:18	막 16:19 ; 딤후 3:16
3	증보자가 되신다	사 53:12	눅 23:34 ; 딤후 2:5
4	변치 않으신 영원하신 분	시 102:25~27	요 8:35 ; 딤후 2:10 ; 히 13:8
5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	시 110:1	막 16:19 ; 뱀전 3:22
6	멜기세덱의 제사장	시 110:4	히 5:6, 6:20
7	머릿돌	시 118:22	눅 20:17 ; 뱀전 2:4~7
8	모든 민족에게 회개의 길을 주신다	사 2:2~4	눅 24:47 ; 눅 13:3
9	공의로운 태양, 우리의 빛	말 4:2~3	눅 1:78~79 ; 엡 5:14 ; 요 8:12
10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단 7:13~14	마 24:30~31 ; 계 22:12,20

●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세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책'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다(골 2:15). 우리의 초점은 오직 예수님께 있어야 한다(요 14:6). 구원의 유일한 길은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 외에는 없다(히 12:2). 다른 선택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이며, 대답이시다. 아멘.

5월 10일, 일본 도쿄에서 코스타다 수락

5월 10일, 일본 도쿄에서 코스타다 수락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홍현의 만나 2011년 10월

Copyright © 2011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진홍용

집필진 | 박인복 박지훈 양재웅

발행처 | 충천교회 출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몰]